

# 1990년도 우편사업 관계 예산요구 중요시책

## ○ 예산편성은 관청가의 대하드라마

1989년 8월 31일, 우편사업의 90년도 예산요구가 대장성에 제출되었다. 예산안은 12월말에 정부원안으로 확정되어진 후 1990년초에 국회에 상정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따라서 12월말까지의 4개월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동안 어려운 각 성청(省廳)의 절충과 정당대책이 전개되어, 살아남은 시책만이 정부원안에 포함되어 예산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안이 1990년초의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될것인지도 사실상 이때에 결정된다. 「신우편연금의 창설」과 「우편저금자금의 자주적 운용」등 커다란 제도개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한 것이겠지만 관계 각 성청과의 절충이라든가, 정당과의 절충은 난항하여 실현하기까지 몇년씩 걸리는 것이 허다하게 많았다. 운 좋게도 자기들의 주장이 통하여서 감개에 젖던가, 혹은 관계 성청등의 두꺼운 벽에 부딪혀 「분한 눈물」을 삼키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이기간 동안의 절충에 달려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정성의 업무중에서 가장 고되고 어려운 일은 이 4개월간이다.

그렇게 하여, 가스미가세끼 관청가에서는 매년 예산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탄생의 드라마가 거듭 되풀이 되는 것이다.

## ○ 「지역사회의 진흥에의 공헌」

1990년도의 우편사업관계 예산요구의 중요시책은 별표와 같은데 그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진흥에의 공헌」과 「우편사업 운영기반의 정비·충실」이다. 이 2개의 짧은 말속에, 이제부터의 우편사업의 경영방침이 농축되어 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국영인 우편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이며 따라서, 예산요구의 슬로건이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의 최고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자세를 질게 반영하는 것이 된다.

금년은 기둥을 2개로 하고 있으나, 작년까지는 「이용자 니드에 대응한 섬세한 서비스의 제공」이 또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역사회의 진흥에의 공헌」이라는 기둥으로 압축한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즉 「다극분산형 국토의 형성과 풍요롭고 매력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이라는 현재의 국가 정책과제에 우편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표명

\* 예산편성은 관청가의 대하드라마  
\* 「지역사회의 진흥에의 공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편사업에 있어서의 오랜 숙원인 몇개의 기본적인 제도개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다.

### ○ 적년(積年)의 비원을 달성할 호기

근년의 우편사업을 볼때, 직원이 노력한 결과, 우편사업 자체의 서비스 개선과 영업활동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고, 그리하여 재정상황도 과거와 비교하여 대폭으로 개선되어 왔다.

금후는 우편사업 자체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정사업 전체 또는 우체국의 존립 자체에도 관련되는 기본적인 제도개정을 향하여 노력해야 할 시기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주민표의 복사라든가 여권의 신청·교부등의 사무를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체국을 재건축함에 있어서도 고층화하면, 토지의 유효이용도 될뿐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등에는 야간에도 문을 열고 있는 우체국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등으로 쉽게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옛부터 화제에 올라, 누구라도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일견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말하는 이러한 과제는 어느 것도 관계성청의 이해와 국영사업의 제약속에서 최후에는 「어렵다」라는 일언으로 끝내 버려왔던 것이다. 우정성의 내부에서 거론되는 일은 있어도 그것을 정식으로 예산요구의 중요시책으로서 채택하여 상대적인 법률개정을 요구하여 타 성청 절충에 들어간다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

지난날 2,500억엔이나 있었던 우편사업의 누적적자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오늘날, 우리들 앞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우체국의 사회적 기능의 강화 충실이라 할 수 있는 장래를 겨냥한 기본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의 진흥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어있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숙원이랄 수 있는 제 과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여 당당히 타성청과의 절충에 도전해 나갈 호기이다.

인사이동에 의하여 간부급 직원이 일신(一身)된 우무국에서는 연일 1990년도의 예산요구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거듭한 결과, 전술한 중요시책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제도개선과 당면한 업무수행대책으로서 불가결한 필요인원문제를 최중점 항목으로 하고, 우무국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 그 실현을 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 우편은 우정사업의 근간

독자중에는 주민표와 여권의 문제등은 우편사업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므로 우편사업으로서 채택하지 않아도 무방한 과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우편사업은 우정사업의 근간이며, 나아가서는 우정행정 기본이다」. 이것은 신임 우무국장이 취임한 이래, 일찍부터 운위되고 있는 일이지만 「우편이 있기에 우체국이 있고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그 창구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금이나 보

\*적년(積年)의 비원을 달성할 호기

\*우편은 우정사업의 근간

힘이 있다. 따라서 우체국의 존립의의에 관하여 가장 관련이 큰 것이 우편사업인 것이다.

현행법령상에도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가 우무국의 소관사무로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 3개의 제도 개선의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 「주민표·여권등의 교부」

주민표나 여권에 대하여 주민의 신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체국의 창구에서도 신청·교부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편리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2만 4천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87년 4월 지바县的 사쿠라시 특정국장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주민표등의 신청·교부의 우송서비스」가 그후 불과 2년간에 구마모토시를 비롯한 약 200개의 도시와 지방까지 확대되어 거기에 소재하는 약 2,100개의 우체국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도 긍정적으로 짐작이 될 것이다.

또한 부외의 유식자에 의한 「우체국의 장래비전 간담회」 「우편의 기본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회」 「우정성의 지방정책에 관한 간담회」등에서 연이어 실시해야 한다 라는 답신을 얻고 있는 바이다.

한편, 지방자치체에서는 도시와 지방의 창구가 부족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우체국의 창구를 활용하게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우무국은 이미 자치성·법무성·외무성등의 관계성

청과 진지한 절충에 들어가고 있다. 쌍방이 주장하는바 간격은 크며, 실현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지만 우리의 이론구성과 여론의 지지가 있으면 실현을 향하여 크게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우체국용지의 고도이용등 관련사업에의 출자」

다음, 우체국용지의 고도이용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사업에의 출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근년, 대도시의 지가고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유효이용이 요망되고 있는데 우체국은 그 대부분이 시가지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JR<sup>1)</sup>에서 역빌딩을 건설한 것처럼 우체국용지가 고도 이용될 수 있도록 된다면 우정사업으로서의 자산의 유효활용이 됨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령 동경중앙우체국의 대지를 한도까지 고층화한다고 하면 가스미가세끼 빌딩에 근사한 건물이 출현하는 셈이 된다.

우체국사로서 그 일부를 이용함은 당연하지만 부족한 도심의 오피스 수요에도 부응하는 점에서 지가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유지에 우편사업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의하여 빌딩을 건설한다는 것이 되므로 국유재산의 보전이나 당해법인의 감독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이 필요하고, 대장성을 비롯한 관계성청과 이미 절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출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구미 선진국에 의하여 1989년 1월에 화란에 설

\* 「주민표·여권등의 교부」

\* 「우체국용지의 고도이용등 관련사업에의 출자」

립된 「국제우편기구」도 고려하고 있어, 이 출자제도의 실현은 국제협조의 분야에서 도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 ○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점포의 설치」

도시에 있는 우정창구기관의 부족은 바야흐로 심각하며 특히 東京都심부에 있어서는 민간금융기관이 메인스트리트에 지분을 잇대어 늘어서 있는데 반하여 우체국은 일반의 이용자에게는 거의 알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86년과 87년의 2년간에 東京都구내에 개설된 민간금융기관의 점포수는 165점포인데 대하여 우체국은 경우 4국의 개국을 한데 불과하다. 이러한 것은 당현한 것이라 하겠으나 장려부문의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방치하면 우정사업전체의 활력을 손상하게 됨은 확실하다.

그래서 1989년 8월 본성에 우무국장을 회장으로 한, 擧省的 체제의 멤버구성에 의하여 「대도시 창구기관 설치 추진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또, 동경지방우정국에도 전문의 조직을 만들어, 특정우체국창구의 증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에서는 오피스스페이스의 확보난과 임대료의 고액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 또는 이용자의 생활패턴에 적응한 형태로의 야간창구의 개설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점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위탁방식에 의한 소규모점포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는것도 필요하게 되었다. 역구내 지하상가 백화점코너등 현재의 특정우체국 창구조건을 가진 장소에 대해서 특

정우체국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점포의 활용을 도모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더욱더 다양화·고도화하는 고객의 니드에 대하여 우정사업이 그 사명으로서 액세스포인트(고객서비스의 거점)를 어떻게 개선하여 재구축할 것인가가 요청되고 있다 할 것이다.

#### ○ 우편사업운영기반의 정비·충실

「지역사회의 진흥에의 공헌」이 우편사업의 밖으로 향한 대처방침이라고 한다면, 또하나의 기둥인 「우편사업운영기반의 정비·충실」은 내부로 향한 대처방침이다.

최근에 경기의 회복과 직원의 활발한 영업활동에 의하여 대도시근교지등에서 우편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의 요원과 시설만으로는 대응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0년도의 우편물수의 신장율은 9.3%, 약 20억통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을 잘못하면, 동경, 관동, 동해지방우정국 각 관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연배달이 확대 되어갈 염려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편물을 원활히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정원을 확보하고, 초과근무·임금등에 대하여도 필요한 증액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직원의 의욕을 환기하는 뜻에서 작년에 창설한 우편판매 촉진수당에 이어 업무운영면에 능률을 반영할 새로운 수당제도의 창설도 할 생각이다.

이는 우편사업의 예산요구중요시책의 속에 정원이나 초과근무임금의 확보, 더

\*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점포의 설치」

\* 우편사업운영기반의 정비·충실

하여 새로운 능률급의 창설이라는 항목이 설정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작년까지는 신규서비스의 개발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의 획득등이 중요시책으로서 등장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기에도 우편의 업무운영 현실을 직시, 중시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고 할 것이다.

○ 三重苦의 정원문제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위에서 본 3가지 제도의 개선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으나 현재의 공무원제도하에서는 그 실현이 용이하지 않다.

정원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정부전체가 개혁의 도중에 있고, 제7차정원삭감계획이 진행중이다.

우정사업에 있어서는 87년부터 91년까지의 5개년에 약 1만 5천명의 정원을 삭감해야 하고, 현실의 사업의 요청과 이러한 공무원전체를 커버하는 행정개혁의 방침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골치아픈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주휴 2일제로의 대응도 생각한다면 우편사업의 정원문제는 그야말로 삼중고 속에 놓여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총무청과 대장성을 비롯한 관계 성청등과 강력히 절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관계 노동

조합등과도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 공공성과 기업성의 사이에서

이상 1990년도의 우편사업관계 예산요구중요시책중, 최종점항목으로서 추진할 세가지의 제도개정과 요원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나 이밖에 「국제화에의 대응」이나 「농어촌 지역의 진흥」등도 중요시책으로서 올려놓고 있는바 이것역시 지금까지의 예산요구에서는 보지못했던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공통점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편사업을 보다 국영사업답게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가지가 우편사업에 주어진 경영이념이라는 것은 옛부터 변함이 없다. 그러나 경영환경의 변화나 우리가 추진해야할 경영기반을 직시하는 가운데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미묘한 밸런스를 여하히 확보할 것인가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편사업의 경영을 과오없이 다음 시대를 걸머질 세대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아다치 우무국 총무과장)  
(Post 21 1989. 10)

\* 三重苦의 정원  
문제  
\* 공공성과 기업  
성의 사이에서

1990년도 예산중요시책

지역사회의 진흥에의 공헌과 우편사업 운영기반의 정비·충실

우편사업이 지역사회에의 진흥에 크게 공헌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에 밀착한 서비스의 제공·지역특성에 따른 창구기능의 충실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우정사업의 근간인 우편사업의 운영기반의 정비·충실을 도모한다.

사	업	개	요
1.	지역사회 진흥에의 공헌		
(1)	지역에 밀착한 서비스의 제공	○ 수집의 회수증가에 의한 우편의 스피드업 (신규)	
(2)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창구기능의 충실	○ 지방우표의 발행 (신규) ○ 업무위탁에 의한 소규모 점포의 설치 (신규) ○ 탄력적인 우편창구취급시간의 설정 (신규) ○ 무인우체국의 설치 (신규) ○ 이동우체국의 확충	
(3)	창구서비스의 다양화·정보화	○ 주민표·여권, 철도승차권의 교부등 창구서비스의 다양화 (신규) ○ 우편창구 단말기의 배치 ○ 등기우편 추적시스템 구축	
(4)	과소지역의 진흥	○ 특산품소포의 개척 (신규) ○ 지역 그림엽서의 발행 (신규) ○ 지역정보제공 서비스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신규)	
2.	우편사업 운영기반의 정비·충실		
(1)	사업운영기반의 정비를 위한 관련사업에의 출자	○ 시설의 유효이용·토지의 고도이용에 이바지하는 사업에의 출자 (신규) ○ 우편물 수송기기의 원활한 관리에 이바지하는 사업에의 출자 (신규) ○ 우편사업의 비상근직원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사업에의 출자 (신규) ○ 국제우편기구에의 출자 (신규)	
(2)	우편물증가에 대응한 요원배치	○ 정원의 확보 ○ 초과근무수당·임금·집배운송비의 증액	
(3)	근로의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능률급의 개선·충실	○ 우편업무 담당수당의 창설 (신규)	
(4)	국제화에 대응한 우편관계 시책의 충실	○ 외국 우정청과의 우편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신규) ○ 국제우편추적시스템의 구축 (신규) ○ 개발도상국의 우편관계직원의 영입 (신규) ○ 영어판 가이드북의 작성등 외국인의 액세스의 개선 (신규)	